



제1회 전국기술사대회 대회사

이 정 만 회장

공사 간 바쁘실 텐데 제1회 전국기술사대회에 참석하신 기술사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준비 하시느라 매우 분방한 가운데도 이 자리를 빛내주신 대통합민주신당 이영호 의원님과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한·미 기술사 간 상호협력과 우의를 다지기 위하여 태평양을 건너오신 로버트 에스 밀러 3세(Robert S. Miller III) 전 미국기술사회장님께 따뜻한 우정과 감사 말씀드립니다.

특히 좋은 시설을 제공해 주신 한양대학교 김종량 총장님을 비롯하여 자리를 함께 하신 모든 귀빈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친애하는 기술사 동지 여러분!

대회 추진위원회에서 이번 대회 주제를 『기술사제도 무엇이 바뀌었고 무엇을 바꿔야 하나』로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앞 시간에 따로 보고하고 토의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기술사제도의 과거 현재를 거시적 관점에서 짚어보고 미래에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코자 합니다.

우리나라 기술사제도는 1963년 기술사법 제정으로 도입 시행된 뒤 10여 년간 이공계 우수인력이 진출하는 한 축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했습니다. 산업현장기술을 주도하며 우리나라 산업발전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다가 1973년 국가기술자격법이 제정되면서 기술사제도를 흡수하였고, 1974년에는 기술사법이 폐지되었습니다. 세계 기술사제도에 찾아 볼 수 없는 불행한 사례였습니다. 이때부터 기술사제도는 근본이 뒤틀리고 왜곡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산업의 급속한 팽창은 기술사의 절대 부족을 초래하여 기술사를 의무 고용토록 한 규정을 폐지했으며 학·경력에 의한 소위 인정기술사인 「특급기술자」제도를 무한정 확산시킨 빌미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전개는 고난도의 시험에 의한 기술사제도를 사실상 붕괴시켰습니다.

존경하는 기술사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폐지된 기술사법을 부활시켜 다시 제정하였고, 지난해에는 10여 년간 운영해 온 여러 법령을 고쳐 학·경력에 의한 인정기술사 진입을 차단시켰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핵심인 기술사를 배출한 시험 근거를 기술사법으로 환원하지 않고, 국가기술자격법령에 존속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사에 대한 일관된 발전 정책을 수립할 수 없고, 기술사 위상을 저하시키는 난맥



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차기 정부와 국회에서는 기술사시험을 반드시 기술사법으로 환원,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 동참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로 결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우리 기술사처럼 변호사, 의사, 건축사, 변리사 등 여러 전문가들이 각기 관련 법령에 의하여 배출되고 직무를 수행합니다. 전문가의 법령체계는 배출의 근거와 직무활동을 단일 법체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자격 소지자가 아니면 책임 있는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술사 직무수행에도 대등한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2년 이후 이 제도가 훼손 된 뒤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공계 자격만 홀대하는 시대착오를 해소 하는 데 한국기술사회가 앞장서겠으니 3만 3천여 기술사들이 힘을 모아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들은 어떤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법 원리로 국내외 제도에 정착된 내용의 반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균형과 형평성 차원의 제도로 환원을 주장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철될 때까지 끈질기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술사 여러분!

지금은 지식기반 경제체제입니다. 기술이 경제의 중심을 이룬 시대입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한 「기술자본주의」시대인 것입니다. 국가 최고 기술자격을 어렵게 획득한 여러분은 끊임없이 변하는 글로벌 기술 환경에서 꾸준한 기술향상을 통해 자신이 속한 조직을 이롭게 하고 자신도 함께 성장토록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는 국가발전과 국민 편익으로 승화되리라 확신합니다. 국제 기준에 따른 계속교육제도나 오늘의 모임도 그러한 틀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깊이 이해하고 성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3만 3천여 기술사 모두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깃들기를 기원하며, 오후의 분야 별 세미나 행사까지 성황리에 마칠 수 있도록 진지한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9월 29일

한국기술사회 회장 이정만